

미국과 멕시코 환경운동의 성장과 변화

정 수 복*

〈목 차〉	
I. 머리말	VII. 멕시코의 환경문제
II. 미국 환경운동의 형성	VIII. 멕시코의 정부 주도적 환경 운동
III. 미국의 비판적 환경운동의 흐름	VIII. 멕시코의 풀뿌리 환경운동: 멕시코 북부 지역 환경운동 사례
IV. 환경운동의 성장	IX. 맷는말
V. 미국 환경운동의 문제점과 전망	

I. 머리말

이제 환경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이 중요한 사회운동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것을 공적인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환경운동에 대한 연구는 환경사회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운동의 전체적 흐름을 조감하면서 환경운동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과 멕시코라는 서로 다른 '발전'의 수준에 있고 상이한 정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환경운동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의 외곽 또는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비판적 환경운동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환경운동의 다양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먼저 미국 환경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주류 환경운동의 형성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연구위원

전개를 살펴 본 다음 심층생태론에 입각한 급진적 환경운동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환경정의운동을 대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를 환경운동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반환경운동(anti-environmentalism)의 유형과 활동을 따져볼 것이다. 미국의 환경운동에 비해 멕시코의 환경운동은 다소 간략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먼저 멕시코의 정부 주도적 환경운동을 살펴본 다음 멕시코의 지역운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환경운동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나라 환경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할 것이다.

Ⅱ. 미국 환경운동의 형성¹⁾

미국 환경운동의 형성에는 환경문제의 특성, 지식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담론,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논의 과정, 정부의 환경정책의 내용,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상태, 환경재난의 발생,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환경운동의 기원과 현대적인 의미의 환경운동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²⁾

1. 미국 환경운동의 기원

미국 환경운동의 기원은 19세기 말에 시작된 자연보전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의 자연보전운동에는 핀총(Guilford Pinchot)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자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를 해야한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이 지배적이었지만 뮈르(John Muir) 등을 대표자로 하는 자연 그 자체를 위한 보전운동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공존하였다.³⁾ 이 운동의 결과 초기의 자연공원들이 설정되었고 '미국산림청' (U.S. Forest Service)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시에라 클럽(Sierra Club)과 오더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졌다. 2차대전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광활한 황무지를 보호하려는 운동으로 지속되었다. 환경운동은 자연이 가진 심미적 가

1) 미국의 주류환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Dunlap & Mertig(1992)과 Young(1990) 그리고 Sale(1993)을 주로 참조하였음.

2) 환경운동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는 정수복(1993: 272-279와 1994: 109-116等)을 볼 것.

3) 시에라 클럽은 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존 뮈르의 유산을 공유하자”는 구호 아래 “황무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산들을 기쁘게 하라”는 뮈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치를 보존하여 인간 정신의 휴식과 고양을 도모하는 운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랜드캐년(Grand Canyon)과 공룡 유적지(Dinosaur National Monument)를 지키고 보호하는 운동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2. 미국 현대 환경운동의 형성

초기의 자연보전이라는 관심과 더불어 자연 자원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과 수질, 토양 그리고 대기의 오염문제 등이 환경운동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이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이 출판되면서 환경 운동은 자연보전 운동을 넘어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카슨은 살충제의 과다 사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소설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기술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환경问题是 그 원인이 복합적이고 결과도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환경의 파괴는 자연의 파괴를 넘어서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인구의 팽창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얼릭(Paul Ehrlich)의 <인구폭탄 The Population Bomb>(1968)과 생태계의 법칙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커머너(Barry Commoner)의 <원은 닫혀야 한다 The Closing Circle>(1971)도 미국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미국 환경운동은 1970년 지구의 날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행사에는 무려 2천만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연보전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 반전운동, 반문화운동 등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전환되고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 메스미디어의 환경보도 증가로 미국인의 환경의식이 상승되었다. 다른 한편 1972년에 발간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에 나온 슈마허(E.F.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는 기존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생태주의적 대안 경제를 모색하는 환경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또 2차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면서 점차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휴가문화의 확산으로 자연과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자연보전단체들이 환경운동단체로 전환되고 새로운 환경운동단체들이 출현하면서 미국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표 1>을 볼 것). 환경문제는 이제 미국사회의 중요한

〈표 1〉 미국의 주요 환경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Sierra Club	환경분야에 로비활동과 환경소송을 지원하는 주류환경운동단체로 지역 조직이 강함(회원수 60만)
National Audubon Society	조류와 동물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주류환경운동단체
Nature Conservancy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서식지를 매입하는 주류 환경운동단체(회원수 50만 이상)
World Wildlife Fund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세계단체의 미국지부(회원수 50만 이상)
Environmental Defence Fund	1980년대 중반 정부규제보다 시장기제를 강조한 친정부적 환경운동단체
Conservation Foundation	주류 환경보호단체
World Resource Institute	주류 민간 환경정책 연구소
The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환경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활동
Greenpeace	핵, 고래어업 분야 등에서 현장의 직접행동으로 환경문제를 환기시키는 급진적 환경운동단체(회원수 100만명)
Friends of the Earth	주류 환경단체에 반대하는 비주류 환경운동단체
Environmental Policy Institute	비주류 민간 환경정책연구소
Environmental Action	비주류 환경운동단체로 Environmental Task Force와 통합됨
World Watch Institute	비판적 민간환경연구소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생태적 가치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환경운동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미국의 환경운동은 점차 제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환경운동의 결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환경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등의 환경관련 정부기관이 만들어지고 대기와 수질오염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다. 카터 행정부 기간(1976~1980)의 친환경적 정책노선은 환경운동의 열기를 식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제도마련과 규제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환경운동의 운동력은 점차 감소되었다. 운동의 열기가 식고 운동단체는 상근직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이익단체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지도부는 정부와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정부가 만든 환경기구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많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사라지고 정부의 환경정책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레이건(Ronald Regan) 행정부(1980~1988)의 반환경적 정책기조는 환경운동을 재활성화시켰다. 환경단체의 회원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환경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공직 재단과 국회의원들의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 1980년대 환경운동이 재활성화된 원인으로는 레이건 행정부의 반환경정책과 더불어 기존의 공해문제를 넘어서 산성비, 오존층 파괴 같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새로운 환경문제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또 지속적인 환경파괴와 예기치 않은 환경재난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도 환경운동을 재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환경운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다.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면서 지역, 국가와 더불어 전지구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확대되고 다양한 계층, 집단으로부터 환경운동의 활동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수질, 대기, 야생동식물, 에너지 등의 이슈별 전문화의 방향으로 환경운동의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운동 방식도 정부의 환경규제법안과 제도화를 위한 로비활동, 환경재판을 통한 환경운동, 과학적 조사연구와 결과 발표, 선거과정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운동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III. 미국의 비판적 환경운동의 흐름

196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학생운동, 여성운동, 민권운동, 평화운동, 반문화운동 등이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은 반면에 환경운동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환경운동은 조직적 기반을 갖는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환경운동의 성과는 환경단체의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운동의 궁극적 평가 기준은 위기에 처한 환경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가에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환경운동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환경파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 환경운동의 체제 내의 환경운동이 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미국의 주류 환경운동단체의 활동과 구별되는 두가지 비판적 환경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심층생태론과 급진적 환경운동

먼저 심층생태론에 기반한 급진적 환경운동의 흐름이 있다. 이들은 주류환경운동과 환경문제의 진단과 처방에서 생각을 달리한다. 심층생태론은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산업사회와 소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은 인간의 복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인간중심의 표층생태론(shallow ecology)을 비판하면서 생태중심적 가치관을 선포한다(〈표 2〉를 볼 것). 드볼이 그 대표적 이론가이며 Earth First!, Greenpeace, Sea Shepherd Society, Rainforest Action Network 등이 주류환경단체를 비판하는 급진적 환경운동 단체들이다. 심층생태론을 주장하는 철학자,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활동가들의 견해를 실는 중요한 매체로는 Trumpeter와 Environmental Ethics 등이 있다.

심층생태론에 입각한 급진적 환경운동은 주류 환경운동단체들의 체제내화를 비판하면서 시위, 연좌농성, 점거 등 비합법적 비통상적 직접행동도 불사한다. 주류 환경단체는 이들을 ‘환경테러리스트’(eco-terrorists)라고 비난하고 심층생태론자들은 체제내 환경운동가들이 자기만족적이고 관료적이고 자신들의 직업적 전망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⁴⁾ 심층생태론의 입장에서는

〈표 2〉 심층생태론 현장

-
1.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물체의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 이외의 생물체의 가치는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2. 생명체의 종류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이다.
 3. 인간은 스스로의 필수불가결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체의 종류를 축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4. 인간 생명의 번영은 인구를 크게 감소시키는 일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번영을 위해서도 인구의 감소는 필요하다.
 5. 현재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개입은 지나친 것이어서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6. 위의 5가지를 고려하여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책의 변화는 경제적, 기술적, 이념적 기본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 인간 사회의 모습은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7. 높은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높은 생활수준이라는 가치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8. 위의 사항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실시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출처: Arne Naess(1990: 88쪽)

4) 맥크로스키(McCloskey: 1992: 78)는 기존의 정치경제체계의 틀 안에서 정책의 변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류 환경단체의 운동가들을 ‘실용적 개혁주의자’(pragmatic reformers)라고 부른다.

개개인이 단순하고 절제적인 생활양식을 갖게 되면 소비양식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개개인의 참여와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⁵⁾ 심층생태론자들은 새로운 의식(儀式)을 통하여 자연 속의 인간이라는 영성을 확산시키고, 시와 음악 등의 예술 장르나, 신화의 재해석 등의 창조적 표현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 속에 다른 생물체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2. 인종차별주의와 환경정의운동

주류환경운동에 대한 두번째 비판적 흐름은 자연보호보다도 인간이 사는 주변 환경부터 개선하자는 소수민족 거주지의 풀뿌리 환경운동이다. 환경정의운동은 유독성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공중 보건(public health)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흑인거주지역에 소각장 등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기피시설의 설치 비율이 백인 거주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불평등 현상을 '환경 인종차별주의' (environmental racism)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 평등' (environmental equity)과 '환경 정의' (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198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렌(Warren) 카운티의 흑인거주지역에서는 유해 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벌어져 전국적으로 흑인 민권운동가들과 노조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유발한 환경정의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유해폐기물 반대운동으로는 처음으로 400명이 구속되는 사건이었다. 이어서 1983년에는 뉴올리언즈에서 '도시환경회의' (Urban Environmental Conference)가 열려 흑인 인권운동가, 노조지도자,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느슨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흑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정의운동은 점차 1960년대의 민권운동의 경우에서와 같이 항의, 지역에서의 시위, 피케팅, 정치적 압력, 소송 등의 직접 대치적인 운동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운동은 평등한 환경의 질을 모든 개인의 기본권으로 주장하였다. 1987년에 '인종정의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가 발표한 <유해 폐기물과 인종 Toxic Wastes and Ra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환

5) 선진 소비사회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녹색소비자운동(green consumerism)도 심층생태론의 입장은 아니지만 생활양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이다.

경 인종차별주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인종이라는 변수가 유해폐기물 처분장 설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환경정의운동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대안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환경정의운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무시하는 것이며 님비(NIMBY)를 넘어서 니아비(NIABY)의 관점으로 발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⁶⁾ 환경정의운동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반대뿐만 아니라 오염된 매립 지역에 대한 사후처리 요구,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 접근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환경정의운동은 정부와 기업,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산업환경정책의 결정과정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어 지역 차원의 강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의 성격을 띤다. 이 운동은 단순한 반대운동에서 점차 환경정의를 주장하며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⁷⁾ 환경정의운동은 주류환경운동단체와 달리 피해지역주민들의 정치적 능력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특히 흑인민권운동이 강했던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풀뿌리 환경정의운동에는 노동계급과 소수민족집단이 참여하는 경향이 높으며 여성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전국적인 주류 환경운동단체의 참여자가 주로 신중간계급의 백인 남성들이라는 사실과 대비되는 것이다.⁸⁾ 아래의 <표 3>은 주류환경운동과 환경정의운동의 차이를 요약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폭발 등으로 나타나는 환경재난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환경운동도 환경정의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78년 러브커넬

6) 환경정의를 내세우는 풀뿌리 환경운동은 유독성 폐기물 처분장,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마을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운동에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은 어느 곳에 설치해도 안된다는 니아비(NIABY: Not In Anyone's Back Yard)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7) 환경정의운동과 더불어 환경사건도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구로 발전하였다. 러브커넬(Love Canal) 사건 이후 깁스(Lois Gibbs)를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유해폐기물처리시민연대' (Citizens' Clearinghouse for Hazardous Wastes)와 드리마일 아일랜드(TMI) 사건 이후 골스보로(Goldsboro)와 뉴베리타운쉽(Newberry Township) 주민들에 의해 전개된 주민참여운동이 그 보기이다. 환경사건 이후 직접민주주의적 요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Goldsteen and Schorr(1991)를 볼 것.

8) 거의 백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류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을 '백색 환경주의' (white environmenta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3〉 주류환경단체와 환경정의운동의 차이

	주류환경단체	환경정의운동
불평등과 시민권에 초점	-	+
직접행동도 허용	-/+	+
피해집단의 정치능력 향상 추구	-	+
반환경운동에 대응	-	-/+

+ : 적극적 주장과 활동; - : 관심없음; -/+ : 경우에 따라 주장과 활동

출처: Bullard and Wright(1992: 42)에서 재구성

사건 이후의 지역주민운동이 그 보기이다. 이 사건 이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요 일간지의 전면을 장식하고 의회의 주요 의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수천개의 지역공동체에서 오염된 지역의 정화요구, 공해배출공장의 폐쇄, 예정된 유해물질 발생시설 설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적 활동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이 성장한 배경에는 세가지를 들수 있을 것이다(Freudenberg and Steinsapir, 1992: 28). 첫째 이차대전 이후 중화학공업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공장과 폐기장과 운송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공해물질의 배출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지역 공동체가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둘째로 환경의식의 고양이다. 앞서 말한 바 있는 레이첼 카슨, 베리 커머너 등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 책들이 널리 읽히고 1970년 지구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새로운 환경운동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흑인민권운동, 월남전반대운동 등을 지역조직, 시위, 시민불복종, 정치교육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사회운동의 압력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풀뿌리 환경운동은 이전 사회운동의 조직형태와 전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1960-70년대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은 환경정의운동에 중요한 리더쉽을 제공하였다. 학교와 거주지의 분리, 직업상의 차별 등에 반대하는 흑인 사회운동집단과 지역주민조직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을 둔 풀뿌리 환경운동조직들의 구성원들은 서로 중복적이다. 환경정의운동은 기존의 운동망(preeexisting network)과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⁹⁾

9) 그런 점에서 기독교연합교회(United Churches of Christ)의 벤 샤피스(Ben Chavis),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의 조셉 로어리(Joseph Lowery), 전국무지개연대(National

1990년대에 이르러 풀뿌리 환경운동은 세단계의 느슨한 조직형태로 발전하였다. 지역공동체수준(community-based groups), 권역(region) 또는 주(state)단위 수준의 연합,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national organization)이 그것이다. 지역공동체단위의 조직의 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스톤에 본부가 있는 '전국유해물질캠페인' (National Toxics Campaign)은 1989년에 1300개 이상의 풀뿌리조직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위험폐기물처리시민연대' (Citizen's Clearinghouse for Hazardous Waste)는 7.000여개 지역 풀뿌리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Freudenberg and Steinsapir, 1992: 29).

IV. 반환경운동(anti-environmentalism)의 성장

환경운동이 성장하고 환경문제가 미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운동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⁰⁾ 반환경운동은 주로 환경운동의 비판 대상인 환경파괴산업과 극우정치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환경운동의 문제제기에 맞서고 있다. 반환경운동은 기업활동의 자유, 민주주의, 경제성장 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핵발전을 옹호하고 화석연료의 개발을 주장하고 매립장의 확장을 지지한다. 이들은 또 국립자연공원 안의 광물자원 채취를 주장하고 높지의 개발을 요구하며 중요한 환경법안 철회운동을 벌인다. 반환경운동단체들 가운데 어떤 단체는 공공연히 반환경운동을 내세우지만 대부분의 반환경운동단체들은 가시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반환경운동은 매스미디어와 법정과 의회에서 환경운동가들을 공격하면서 대중들에게는 자신들도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반환경운동의 이념과 활동

반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는 극우적인 입장이다. 반환경운동단체들은 미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스테레오타입적 사고와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킨다. 반환경운동 쪽에서는 환경운동이 수박과 같아서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갛다고 말한다. 보기률 들어 캘리포니아의 산림관계 관료는 "환경운동가

Rainbow Coalition)의 제시 젝슨(Jesse Jackson)등이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환경정의운동에 관여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지구의 날에 젝슨이 마틴루터 킹 목사와 관련된 아틀랜타대학센터를 출발하여 유해폐기물로 문제된 지역을 순방(toxics tour)한 것은 흑인민권운동과 환경정의운동이 서로 교차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보기이다(Bullard and Wright, 1992: 43).

10) 반환경운동에 대해서는 Deal(1993)과 Helvarg(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들은 좌익의 급진적 집산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도, 마약도, 에이즈도 범죄도 빙곤도 아니라 바로 급진적 환경운동이다”¹¹⁾고 말한다. 또 태평양 북서 지역의 목재노동자들은 “환경운동은 반미운동이다” “환경운동은 사기다”, “환경운동가들은 극단주의자(extremists)들이다”라는 주장으로 환경운동을 비판하고 나섰다(Devall, 1992: 60). 반환경운동은 자연자원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개인적인 소유자들에 의해서 더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반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운동에 맞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용’(wise use), ‘통합된 자원관리’(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중복적 사용’(multiple use) 등의 용어들을 만들어 내었다. 반환경운동단체들은 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야기하고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주장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정부의 환경 규제를 줄여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운동이 경제성장을 지연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반미적인 운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환경운동에 반대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환경운동가들은 반환경적이고 친기업적인 부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환경운동가들에게 이제 환경재판을 중지하고 “미국을 사랑하거나 미국을 떠나라”(America, love it or leave it)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반환경운동단체들은 지역에서의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편지쓰기 캠페인,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하며 가구 방문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린다. 이들은 대체로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환경운동을 비난하는 여론 형성을 위해 활동한다.

반환경운동은 이데올로기적 설득과 더불어 때로 환경운동가에 대한 테러 등에서 보듯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기를 들어 1990년 오래곤주의 오크랜드에서 Earth First!의 조직운동가인 쥬디 바리(Judi Bari)의 차에 몰래 장치되어 있던 폭탄이 터져 크게 부상당하였다. 또 1991년 알칸사스에 사는 그린피스의 연구원인 폴 코스트너(Paul Costner)의 집에 불이 나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20년간의 연구자료가 다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환경운동단체는 환경운동가들을 반미주의자, 반기독교주의자, 반가족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며 Earth First!와 그린피스 등 몇몇 급진적 환경운동단체들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라는 비난도 주저하지 않는다.

11) Deal(1993: 7)에서 재인용.

2. 반환경운동의 유형

위에서 말한 반환경운동을 아래와 같이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첫째, 헤리슨(E Bruce Harrison Co.) 광고회사의 경우처럼 환경파괴적인 기업들을 위한 광고회사들은 광고를 통해 환경운동의 문제제기를 흐리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Evergreen Foundation이나 National Wetlands Coalition같은 단체는 현재의 환경파괴 속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선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환경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설득작업을 벌인다. 셋째로 Cato Institute, Citizens for the Environment and Science, Environmental Policy Project 같은 연구단체들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위기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환경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한다. 네번째로 Mountain States Legal Foundation, Pacific Legal Foundation, National Legal Center for the Public Interest 등의 법률단체들은 정부의 환경규제나 환경단체들의 환경소송에 맞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내세우면서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활동을 벌인다.¹²⁾ 다섯째로 Lilly Foundation, Carthage Foundetion, John Olin Foundation, Sahara Sacrifice Foundation 등의 극우적인 자산 및 증여단체들은 반환경적 연구기관, 법률단체, 캠페인 단체들에 집중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반환경운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 때 환경운동가였던 론 아놀드(Ron Arnold)가 창설한 '현명한 사용운동' (Wise Use Movement)등의 단체는 미국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목재, 광산, 목축, 화학, 관광산업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서 자연공원의 개방 등 모든 규제를 풀어 환경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 이들은 환경운동이 실업을 불러온다고 선전하면서 노동자들을 운동에 가담시키고 있다.

V. 미국 환경운동의 문제점과 전망

아래에서는 미국환경운동의 문제점과 전망을 이념, 조직,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의 환경운동을 이념의 차원에서 보면 기존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환경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용주의적 환경운동과 산업사회

12) 환경운동단체와 반환경운동단체 그리고 의회와 정부 법원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주요 반환경운동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Alaska "Support Industry" Alliance	1979년에 창설되어 알래스카의 야생물보호 구역의 해제를 주장
Alliance for Environment and Resource	1985년에 창설된 Wise Use 산하단체로 목재 노동자의 부인과 어머니들로 구성된 Mother's Watch라는 기동대가 있음
Blue Ribbon Coalition The Cato Institute	석유, 광산, 목재회사를 위한 로비활동 1977년에 설립된 연구소로 환경운동을 작은 정부와 탈규제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
Citizens for the Environment	1990년에 창립되었으며 시장에 기반한 환경보호의 방법을 촉진하는 풀뿌리 반환경운동단체
Committee for a Constructive Tomorrow	1985년에 창설되어 핵에너지, 제초제, 살충제 등의 사용을 주장하고 대기와 수질 오염기준을 낮출 것을 주장
Defenders of Property Rights	1991년에 창설된 비영리 법률재단으로 습지와 역사적 유물, 토지사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정 활동
Evergreen Foundation	오레곤의 목재회사의 지원을 받아 Evergreen이라는 잡지를 5만부 배포.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경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
Keep America Beautiful	쓰레기문제 처리에 있어서 기업보다는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운동
National Legal Center for the Public Interest People for the West	"자연의 재단에 미국시민을 회생시키는 환경단체"에 맞서는 지역 법률재단들의 전국적 연합체 10개 주에 100여개의 지부를 가지고 산림, 광산, 토지 개발의 자유를 주장
US Council for Energy Awareness	1980년에 드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이후 400개 이상의 핵산업체가 지원하여 설립된 원자력발전 지지운동

출처: Deal(1993)에서 구성.

와 소비문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심충생태론자 사이의 균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틀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piecemeal reform)이라는 방식이 갖는 한계(Sale, 1993: 100-101)를 인정하면서 현실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의 유기적 연대가 환경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미국의 주류 환경운동은 도시 교외에 거주하는 중상류층 백인 중심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주류환경운동과 흑인거주지역의 풀뿌리 환경정의운동 사이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조직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환경운동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조직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조직의 비대화에 따라 중앙집권화와 위계질서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 확장되면서 환경운동단체들은 결과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보다는 운동단체의 유지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또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 사이에 지도력, 회원, 재정, 인지도 등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조직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회원수의 증가, 활동영역의 확대, 공적 지원의 증대와 예산의 증액¹³⁾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운동의 동원력, 캠페인능력,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 조직의 비대화에 따라 초기에는 환경운동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점차로 조직의 재정과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인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급진적 환경운동단체들은 주류 환경단체들이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경영에 강조점을 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강조하였다. 이제 주류환경단체의 문제는 운동단체의 확장과 유지가 아니라 환경의 질의 개선이라는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할 기로에 와 있다 (McCloskey, 1992: 87).

1970년대 이후 미국 환경운동은 인구폭발, 에너지, 핵, 폐기물과 산업공해 등의 문제를 이슈화하였으나 주류환경운동은 토지와 자연보호, 황무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가장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다른 여러 이슈 가운데 자연보호가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운동의 이슈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지구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미국이 갖는 위치는 미국의 환경운동으로 하여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미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 확보와 더불어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우림의 파괴 등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환경운동은 자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정수복, 1995b).

주류환경운동, 급진생태주의운동, 환경정의운동이 협력과 경쟁 속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미국의 환경운동은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환경운동의 과제는 부상하는 반환경운동에 맞서 주류환경운동, 급진적 환경운동, 환경정의운동 사이의 연대와 협력관계의 구성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국의 환경문제를 전지구적 관점에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13) 환경단체들은 회원들의 회비와 더불어 카탈로그 판매, 책 출판, 에코투어, 신용카드 발급, 환경상담 등 환경수익사업으로 기금을 마련하였다.

VII. 멕시코의 환경문제

멕시코는 1930년대 이후 50여년에 이르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70-80년대 해외자본의 유치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은 도시의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산업국가들보다 멕시코 같은 신홍공업국들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IMF 등이 권장하는 외채에 기반한 수출지향적 산업화전략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없다. 일단 경제성장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¹⁴⁾ 석유개발산업에 의한 해안의 오염, 대규모 공업단지의 산업폐기물의 증가 등과 더불어 미국과의 국경 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50년 동안 멕시코 산림의 66%가 감소했다. 또 토양의 오염과 사막화, 호수와 해양의 오염도 심각하다. 멕시코의 60% 이상의 하천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또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했다.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보자면 도시와 농촌 모두가 심각한 환경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농촌은 대규모 단일 작물 농업으로 바뀌어서 다량의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는 기업농화 되었는데 그 결과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세계시장의 경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 가면서 벼려진 오염된 땅들이 늘어가고 있다.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하는 대도시는 대기오염 말고도 주택, 교통,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인구 2천만의 세계 제2의 도시인 멕시코시티는 대기오염 세계 제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고지대의 분지라는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과 자동차 수의 급증(250만대), 그리고 공해배출기업의 집중(전체 공장의 50%인 36,000개의 공장이 멕시코 시티에 위치하는데 그 가운데 70%가 공해방지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등이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동차 매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해당한다. 특히 납 성분의 오염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Faber, 1992: 11-12). 멕시코시티의 아황산가스와 오존 농도는 서울의 10배인데 이것은 하루 담배 두갑을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1987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시티의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치안문제에 이어서 시급한 해결을 요

14) 멕시코를 포함하여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의 환경과 발전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Goodman and Redcliff(1991)을 볼 것.

구하는 두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Janetti-Diaz, 1995: 177; Mumme, 1992: 130).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을까? 멕시코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서 1980년대에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환경정책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환경운동으로부터의 대응이 있다. 크게 보아서 멕시코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단체들을 육성하여 체제내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코포라티즘적 환경정책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¹⁵⁾ 그러나 다른 한편 지역의 차치적 도시빈민운동에서 출발한 좀 더 독자적인 풀뿌리 환경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환경운동은 전체적으로 환경의 파괴가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와 이어져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VII. 멕시코의 정부 주도적 환경운동

1970년대까지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치와 엘리트와 관료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이색적인 주제로 취급되었다. 환경문제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의 하위 단위에 맡겨지고 있었으며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과 쓰레기 문제, 멕시코만의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60% 이상의 강과 쟈팔라(Chapala), 파츠카로(Patzcuaro)등 유명한 자연 호수의 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을 뿐 조직화된 환경단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현안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민간 환경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의 새로운 환경법의 제정이 그 계기가 되었다.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대통령은 1982년 1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주택과 도시개발 그리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장관급의 전담기구인 도시개발환경부(Secretariat de Desarrollo Urbano y Ecología: SEDUE)를 만들어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마드리드 대통령은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짐에 따라 환경운동이 강력하게 형성되기에 앞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5) 이것은 노동문제의 코포라티즘적 통제와 유사하다. Faber(1992: 12)는 정부의 환경운동에 대한 대응을 '선제 개혁'(preemptive reform)이라고 부르고 있다. Foweraker(1994: 227)는 멕시코의 여당인 PRI가 야당과 독자적인 사회운동을 인정하면서도 체제 내로 통합시키는 상황을 가리켜 '조합주의적 민주주의'(corporatist democracy)라고 부른다.

멕시코 시티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초보적이나마 집단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환경문제의 정책 순위를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환경문제를 정치화시켰다. 1983년 중반부터 정부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서 지역과 주와 전국 수준에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 제정된 환경법을 알렸다. 이러한 일련의 캠페인은 1984년 6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환경회의에서 정점에 달했다(Mumme, 1992: 127).

멕시코의 환경관련 NGO들은 시민주도(Citizen initiatives), 자조집단(self-help group), 환경조사와 자문기구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 나름의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고 정보의 확산과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1991년 정부의 환경담당기구인 '도시개발과 환경부' (SEDUE)가 발표한 민간환경단체명부는 216개의 환경단체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1992년 국립생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logy)의 '녹색명부'에 따르면 멕시코 시티를 포함하여 전국 31개 주에 510개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Janetti-Diaz, 1995: 190). 민간환경단체들은 1985년 멕시코 시티의 지진 발생 당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공적인 신뢰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환경단체들은 환경교육과 연구조사, 공해배출기업 감시, 환경피해자 자문, 동식물 보호, 환경친화적 기술의 보급, 지역공동체 참여 증진 등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 환경단체들의 성격과 규모, 구성인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소수의 단체들만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적 환경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소규모 단체로서 재정, 내부조직 전문인력 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 영향력은 지역공동체에 한정되어 있다. 많은 단체들이 소수의 지도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의 참여 유도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집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대중매체에 소개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세분화된 운동, 재정적 기반 확립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멕시코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조직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 만들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도 '친자연' (Pronatura)라는 국제 환경조직과 관련된 비정치적인 소규모의 환경운동단체가 있었지만 1982년에는 '멕시코생태운동'

(Movimiento Ecologista Mexicano: MEM), ‘생태연합’(Allianza Ecologista: AE), 1983년에는 ‘생태주의협정’(Pacto de Ecologista: Pacto) 등의 전국적 지부를 가진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이중에서 MEM이 현재 가장 큰 연합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지역지부는 소규모 조직이고 대부분 교육받은 중산층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또 1985년에는 예술가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100인회’(Group of One Hundred: the Cien))가 만들어졌다. 100인 그룹은 살리나스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아무튼 이와 같은 환경운동단체의 형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위로부터 시작된 환경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단체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보호자적 역할(tutelary role)을 포기하지 않았다. 환경단체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책의 결정에 시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여러 수준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환경문제가 체제비판적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고 체제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로 축소시키는 선제적 개혁(premptive reform)이며 조합주의적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선제적 환경정책은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환경단체들은 체르노빌, 보팔 등에서 일어난 환경재난과 1984년 San Juan Ixhuatepec에서의 가스 폭발사건, 1985년 멕시코시티의 지진 등의 사건에 자극받아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였다. 또 환경단체들은 멕시코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라구나 베르데(Laguna Verde)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여 1년 이상 공사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환경단체의 비판은 1982년-1988년 사이에 SEDUE장관을 4명이나 경질시켰다. 환경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멕시코 환경단체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체제 내로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조합주의적 환경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멕시코 경제의 위기와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가 있다. 작은 환경예산,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문제의 지속, 핵발전소 건설의 강행, SEDUE의 부패와 무능,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의 포기와 농촌의 황폐화 등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가중시켰다.

마드리드 대통령 임기 말에 환경문제는 중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치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당인 제도혁명당(Intitutioan Revolutionary Party: PRI)을 비판하는 야당세력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

었다. 환경운동 세력은 여당인 제도혁명당(PRI)를 비판하면서 야당인 민족민주전선(Frente Nacional Democratica: FDN)을 지지하였다. 또 전국 생태반핵운동회의는 라구나 베르데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집권여당을 비판하였다. 멕시코 시티의 대기와 위생문제도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살리나스도 선거기간 동안에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선거결과 살리나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멕시코 시티에서 집권당인 PRI가 27.6%를 얻은데 비해 중도좌파연합인 FDN은 45.9%를 얻고 우파 야당인 PAN(Partido de Accion Nacional: National Action Party)은 24.3%를 얻었다. 이것은 멕시코 시티의 주민들이 집권당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마드리드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살리나스 정부는 환경단체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자문을 구하면서 체제내로 유도하였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환경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⁶⁾ 살리나스 대통령은 “사회적 참여가 없으면 환경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강력한 시민참여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환경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주장했다(Janetti-Diaz, 1995: 189).

살리나스 정부는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환경운동 세력은 통제하고 정부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은 허용하고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쓰면서 환경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하는 코포라티즘적 통제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환경운동은 아직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환경정책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경우 환경운동은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세력의 하나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환경운동은 환경문제를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평등이라는 중심 문제들과의 연관성

16) 살리나스 정부는 멕시코시티를 중점적으로 겨냥하는 환경정책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운행의 5부제가 실시되고 배기ガ스에 대한 정기적 검사가 실시되었다. 무연휘발유가 공급되고 수질관리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멕시코시티의 500개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 자연자원보호 지역 선정, 바다거북살육금지, 도시의 개발제한지역설정 등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나무심기, 쓰레기 수거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행사들을 마련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정부의 나무심기운동에 대해 카르데나스는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속에서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VIII. 멕시코의 풀뿌리 환경운동: 멕시코 북부 지역 환경운동 사례

마드리드 대통령이 만든 도시개발환경부(SEDUE)는 점차 정부 내에서 발언권을 높여가면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주와 시 단위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환경법 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분권화와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을 넘어서 농민과 도시빈민층으로도 파급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빈민운동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연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멕시코 남부의 옥사카(Oaxaca)지역 원주민들의 인종문제와 농업문제와 생태계 문제를 종합한 지역운동이나¹⁷⁾ 멕시코 북부의 뒤란고 지역의 주민자치운동과 관련된 환경운동이 그 보기이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운동의 대표적 보기인 뒤란고 지역의 환경운동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⁸⁾

멕시코 북부 뒤란고(Durango)주의 튜날강(River Tunal) 오염에 따른 지역환경운동은 멕시코의 환경운동이 환경운동으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도시빈민운동과 농민운동 조직의 연장선 상에서 일어난 운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역의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건강을 포함한 복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기존의 사회운동 조직망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지역의 사회변동이 가속화되었다.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부품조립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북부 지역의 도시 인구는 농촌경제의 황폐화로 밀려든 유입인구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뒤란고는 그 대표적인 보기의 하나이다. 뒤란고의 지역사회운동은 멕시코 북부의 오랜 농민운동의 전통과 이어져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1968년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급진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마오이즘으로 무장한 초창기 활동가들은 1972년 소작농들의 수세(水稅)저항운동으로 시작하여 도시민중운동(Movimiento Urbano Popular: MUP)로 불리우는 지역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뒤란고의 민중운동 세력은 1973년에서 1976년 사이에 빙민주거지

17) 옥사카의 원주민이 참여한 자생적 발전모델에 입각한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Blauert & Guidi(1992)를 볼 것. 라틴아메리카 농촌 일반의 빙곤문제와 환경에 대해서는 레드클리프(1993: 110-118)를 볼 것.

18) 뒤란고 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Moguel and Velazquez(1992)를 주로 참조하였음.

역(colonias)에 민중방어위원회(Comit de Defensa Popular: CDP)라는 지역주민조직을 상설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민중방어위원회(CDP)는 지역기반을 강화하면서 뒤란고 지역의 도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 도시민중운동은 전기 요금 문제로 일어난 대중적인 동원의 시기에 조직 구성의 핵심인 민중적 인자들을 넘어서 보다 넓은 영역으로 조직과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그 과정에서 뒤란고 주 전체의 민중방어위원회 연대 조직(Comit de Defensa Popular General Francisco Villa de Durango)이 탄생하였다. 1979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지역조직과 CDP내에서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시기였다. 이러한 운동 내부의 민주화 과정은 주민들의 지지와 동원을 더욱 확장시켰다. 주민총회와 공동노동과 같은 공동체 생활과 더불어 술안마시기운동, 주민교육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운동은 음악인 노조와 소기업조합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도 하였다. 1983년과 1985년 선거에서 뒤란고 지역은 여당인 PRI보다 야당인 PAN을 지지하였다.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뒤란고의 지역운동 세력은 정부와 고립화 정책과 억압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를 거부했던 과거의 노선을 수정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선거 결과 많은 수의 운동가들이 당선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뒤란고의 변동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제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진출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조직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은 지속되었다. 1989년 선거에서는 연방의회의원 1명과 시위원회 위원 2명 그리고 10여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들은 뒤란고의 법률제정과 행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990년 뒤란고에는 60개 이상의 CDP가 조직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지역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뒤란고 시와 그 주변 농업지역 주민들의 환경운동이 전개되었다. 환경운동은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운동에서 시작하여 지역주민운동을 강화시켰다. 환경운동은 셀루로이드 제조 공장으로 인한 튜날강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지역 농민들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뒤란고 전체의 물문제와 오염문제로 확산되었다. 뒤란고에서는 농업, 목축업, 산림 등이 지역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물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조직은 SEDUE(Secretariat of Urban Development and Ecology) 정부조직 그리고 기업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도하에 여러 공해방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환경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뒤란고의 독자적인 빈민운동 조직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생취하기 위해 정부의 조합주의적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헬만 (Hellman, 1994: 135-137)은 멕시코의 민중방어위원회(CDP)운동이 식량, 전기, 음용수, 병원, 학교, 기타 사회복지 시설의 혜택을 받으면서 점차 정부의 고객관리주의적 정치 논리(the logic of clientelistic politics) 속으로 포섭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모구엘과 벨라스케스(Moguel & Velasquez, 1992: 184)는 뒤란고의 지역운동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 근본적 운동의 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혜택을 이끌어 내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무튼 뒤란고 지역의 강 오염과 관련된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은 정부주도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환경단체들과 달리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문제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의 형태로서 멕시코의 환경운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IX. 맺는말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 제도의 차이 때문에 환경운동의 형성과정과 성격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환경운동이 1970년대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율적 환경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멕시코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가 주도하는 선제적 환경캠페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 미국의 환경운동이 자연보전운동에서 시작하여 환경정의운동, 심층생태주의로 다양화되었다면 멕시코의 풀뿌리 환경운동은 빈곤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운동조직에서 출발하여 환경운동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시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인 조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멕시코의 환경단체들은 취약한 자원을 가지고 지역적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유럽과 달리 환경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는 미약한 편이다. 여기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졸발트가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왜 미국에는 녹색정당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수세력도 정치적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서 녹색당과 같은 진보적 정치세력이 쉽게 조직화될 수 있었다(정수복, 1994). 그러나 미국 환경운동의 경우에는 보수 양당제와 이익집단들의 로비활동으로 정치적 제도의 틀이 짜여져 있어서

환경운동이 그 틀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또 미국의 정치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적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이념으로서의 생태주의가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Slaton, 1992). 멕시코의 경우는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이 사회운동세력을 제도내로 포섭하는 조합주의적 통제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 세력들이 독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멕시코 환경운동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보다는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두나라 환경운동의 미래는 모두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에 기반하여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미국의 주류 환경운동이 체제내화되어 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멕시코의 환경운동이 정부의 조합주의적 통제에 포섭당할 가능성도 높다. 1990년대에 들어서 멕시코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환경문제보다는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두나라 모두에서 환경운동은 구체적 환경오염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환경기술주의적 입장에서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개선을 제안하는 환경운동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비판적 환경운동의 흐름들이 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운동은 자국의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구조와 사회체제의 건설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선 환경운동의 연대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1994년 1월 1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양국의 환경운동단체는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갖게 되었다(Anderson, 1993).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의 취약한 환경규제를 이용하여 대규모 공해산업이 이전되어 대량의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Janetti-Diaz, 1995: 175). 미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해서 그 전문적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리고 타단체와 연대하여 무역문제를 이슈화하고 환경적으로 위험한 협정 비준반대운동을 벌였다.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1994년 멕시코 중부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4만여 마리의 철새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오더번 소사이어티'와 멕시코의 환경단체인 '100인회'가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국가들의 정부간 기구인 '북미 환경협력위원회' (NACEC)에 3국 공동조사팀 구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환경단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발생할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보의 교환과 연대활동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레드클리프, 마이클

1993 강현수 등 옮김, 『발전과 환경위기』, 서울: 한울
문태훈

1995 "미국환경정책의 변천: 계속성과 단절성," 서정갑 외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서울: 법문사

이효선

1994 "미국의 핵산업과 반핵운동," 『경제와 사회』 제22호(1994년 여름)
정수복

1993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시민환경연구소 엮음 『환경의 이해』, 서울:
환경운동연합 출판부

1994 "유럽환경운동의 형성과 전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최종욱 등
(공저)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1995a "환경과 사회: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이필렬 외(공저) 『교양환경론』
서울: 띠님

1995b "지구환경위기와 국제환경정치," 김경원/임현진(공편) 『세계화의 도
전과 한국의 대응』 서울: 나남

최진호

1994 "사회계층과 환경문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생태사회과
학』 수원: 아주대학교 출판부

Anderson, Terry

1993 *Nafta and the Environment*, San Francisco: Pacific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Policy

Blauert, Jutta and Guidi, Marta

1992 "Strategies for Autochthonous Development: Two Initiatives in
Rural Oaxaca, Mexico," in Dharam Ghai and Jessica Vivian(ed),
Grassroots Environmental Action, London: Routledge.

Bryant, Bunyan

1995 *Environmental Justice*, Washington D.C.: Island Press

Bullard, Robert

1994 *Unequal Protection*,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Bullard, Robert and Wright, Beverly
1992 "The Quest for Environmental Equity: Mobilizing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for Social Change," in Dunlap and Mertig, *American Environmentalism*,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Chazel, François
1993 *Action Collective et Mouvements Sociaux*, Paris: PUF
-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
1987 *Toxic Wastes and Race: A National Report on the Raci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with Hazardous Wastes Sites*, New York: United Churches of Christ
- Deal, Carl
1993 *The Greenpeace Guide to Anti-environmental Organizations*, Berkeley, California: Odonian Press
- Dunlap, Reiley and Mertig, Angela
1992 *American Environmentalism*,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 Earthworks Group &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1991 *Vote for the Earth*, Berkeley, California: Earthworks Press
- Eyerman, Ron and Jamison, Andrew
1991 *Social Movements: A Cognitive Approach*,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Faber, Daniel
1992 "The Ecological Crisis of Latin America: A Theoretical Introduc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Vol. 9, No. 1 (winter, 1992).
- Fingers, Mathias
1992 "The Changing Green Movement - A Clarification" in Mathias Finger and Louis Krisberg (ed),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Supplement 2,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INC
- Foweraker, Joe
1994 "Popular Political Organization and Democratization: A Comparison of Spain and Mexico" in Ian Budge and David McKay (ed) *Developing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s
- Goldrich, Daniel and Carruthers, David
1992 "Sustainable Development in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9, No. 1(Winter, 1992).
- Goldsteen, Raymond and Schorr, John
1991 *Demanding Democracy After Three Mile Island*, Gain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 Goodman David and Michael Redclift
1991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ore, Al

- 1992 *Earth in the Balance, Ecology and Human Sprit*, Boston, New Tork: Houghton Mifflin Company
- Hellman, Judith Adler
- 1994 "Mexican Popular Movements, Clientelism,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1, No. 2 (Spring, 1994).
- Helvarg, David
- 1994 *The War Against Greens*,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Janetti-Diaz, Maria Emilia, Jose Mario Hernandez-Quezada and Chadwick Benjamin Deward
- 1995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rograms in Mexico", in O.P. Dewivedi and Dhirendra K. Vajpeyi (ed.)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Third World*, Westport, Connecticut: Greenword Press
- Jasper, James
- 1990 *Nuclear Poli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uke, Thimothy
- 1995 "The Nature Conservancy or the Nature Cemetery: Buying and Selling 'Perpetual Care' as Environmental Resistence" *Capitalism, Nature, Socialism*, Vol 6, No 2 (June, 1995).
- Moguel, Julio and Enrique Velazquez
- 1992 "Urban Social Organization and Ecological Struggle in Durango, Mexico" in Ghai, Dharam and Jessica Vivian (ed), *Grassroots Environmental Action: People's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umme, Stephen
- 1992 "System Maintenance and Environmental Reform in Mexico: Salinas's Preemptive Strateg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9, No. 1 (Winter, 1992).
- Naess, Arne
- 1990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ep ecology," in J.Ronald Engel and Joan Gibb Engel (ed), *Ethic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usc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Sale, Kirkpatrick
- 1993 *The Green Revolution*, New York: Hill and Wang
- Schwab, Jim
- 1993 *Deeper Shades of Green*, San Francisco: Sierr Club Books
- Slaton, Christa Daryl
- 1992 "The Failure of The United States Greens to Root in Fertile Soil," in Mathias Finger and Louis Krisberg (ed),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Supplement 2, Greenwich, Connecticut: JAI Press INC.
- Stephen, Lynn

- 1992 "Women in Mexico's Popular Movements: Survival Strategies Against Ecological and Economic Impoverishment"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9, No. 1 (Winter, 1992).
Thomashow, Mitchell
1995 *Ecological Identi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Young, John
1990 *Sustaining the Ear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